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 해 란¹⁾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418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에 대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사회문화적 영향(미디어, 부모, 또래 영향), 신체질량지수(BMI),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21개의 경로 중 8개의 경로를 제외한 13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네 영역의 변인이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특히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의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래 영향과 미디어 영향, 외모평가와 외모지향은 신체불만족에 대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불만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체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신체불만족

1)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E-mail : sun_ran@hanmail.net)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간관계, 취업, 승진 등과 같은 일상영역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여성에게는 마른 몸, 남성에게는 근육질의 몸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몸이 이상화되고 있고, 신체 외모나 외형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신체에 대해 불만감을 가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전국 16개 시·도 중·고생 7,0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를 기피하거나 폭식 후 구토를 하는 식이장애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이 12.7%였다. 정상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기는 청소년이 40%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키 158cm, 몸무게 48kg의 정상적인 신체 크기임에도 더 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또한 최근에는 친구나 미디어의 영향과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5%가 신체에 불만족하여 체중과 체형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Labre, 2002). 더욱이 여학생은 이런 경향이 더 심해서 신체질량지수 체중범위에서 저체중에 속하는 청소년이 58.5%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다이어트 경험

이 34.2%에 도달하고 있다(이선행, 2006). 서울시 통계 웹진(2009)에 따르면, 여학생의 54.6%, 남학생의 42.4%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0대와 20대의 60% 이상이 신체 만족과 외모향상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성형을 선호하고 있었다(장휘순, 2007).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이에 따른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급격한 체중 조절 행동의 증가와 더불어 과도한 다이어트 및 다양한 섭식 장애의 위험률을 높이고 있다.

한편,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어떤 요인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주고 유지시키는지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그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Leslie & Janice, 2006; Ricciardelli & McCabe, 2003). 또한 신체불만족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건미, 이로서, 2009; 이상선, 오경자, 2003; Polivy & Herman, 2002; Rheanna, Alison, & Megan, 2007).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을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와 관련된 변인들과 자아개념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신체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외모평가 및 외모지향, 자아존중감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문화적 영향은 신체질량지수, 외모평가 및 외모지향,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에 대한 개념

부모, 또래, 미디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은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적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을 갖게 만들었으며 과도한 체중조절 및 섭식 행동 증가를 가져왔다(Glessner, Hoover, & Hazlett, 2006). 특히 청소년기의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심리적 경향성은 또래나 미디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외모의 사회적 기준을 개인이 보편적 기준으로 받아들여 개인적 요인 중 신체질량지수(BMI)와 신체이미지(body image)와 관련하여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이 나타난다고 보았다(한미정, 2000).

특히 TV, 잡지 등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과 모델은 청소년들에게 외모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증거로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이병혜, 2009). 이병혜(2009)는 여대생들이 TV보다 잡지 모델에 노출되었

을 때 그리고 모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고 그 인물을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느낄수록, 신체이미지를 사회적 차원의 보편적 평가 기준으로 받아들여 외모나 몸매 관리에 더 신경을 쓰며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지향과 외모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높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하지 않을수록 높았다. 또한 외모평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험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은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와 유의한 관계에 있고(홍금희, 2008),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2005; 이영아, 2011).

외모의 사회적 기준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외모지향 및 외모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여성에게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에 대한 동경을, 남성에게는 근육질의 체형에 대한 동경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신체 유형과 기대에 맞춘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Cash, 1994). 특히, 대중매체의 날씬하고 마른 체형에 대한 강조는 청소년기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신체 변화 및 성장체성의 확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해진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른 매력적인 외모는 또래 및 이성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더불어 매력적인 외모가 청소년기 여러 발달 과제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러한 중요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이 어떻게 자아존중

감이나 신체불만족과 연결되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Giudice, 2006; Stice, Killen, Hayward, & Taylor, 1998; Tiggemann, 2001). 즉,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느끼는 경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일치를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몸매에 집착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체중감소습관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다(문정신, 2002; 최명숙, 천숙희, 2007). 또한 이러한 문화 내용은 가족, 또래,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신체 외모와 관련된 체중감소와 증가의 악순환을 빚게 되고 정신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신체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윤진숙, 박정아, 2002; Canals, Sancho, & Arijia, 2009; Chaiton, Sabiston, O'Loughlin, Maximova, & Lambert, 2009; Davison & McCabe, 2006; Ferma, 2005).

신체질량지수 역시 신체불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체형(body shape) 혹은 신체불만족과 관련한 중요한 예언 요인이었다. Sousa(2008)는 청소년들의 비만에 대한 연구에서 체중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비만 여부보다 자신의 체중을 이상적인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간다고 여기는 지각의 문제와 관련시켰다. 그 이유는 이상적인 몸무게에서 벗어났다는 지각이 우울, 낮은 학업성취의 저하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Watkins, Christie와 Chally(2008)는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의 검증에서 과체중과 비만이 더 부정적인 신체상을 보이고 있고, 과체중이 저체중, 보통, 비

만보다 체중과 체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불만족과 관련해서는 저체중, 과체중, 비만 참여자들이 정상체중보다 더 신체불만족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압력의 확산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55.4%의 학생이 정상체중이었고 과체중과 비만은 8.6%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평가체형에 따른 분류에서 22.4%만이 자신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53.5%의 학생이 자신을 살찐 체형으로 평가하였다(천경민, 2010).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 외모 평가가 높는데, 남학생은 뚱뚱한 체형일수록 전반적 외모 평가를 높게 지각하는 반면 여학생은 마른 체형이나 정상체형일수록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비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최영준, 이동환, 오갑진, 2003). 그리고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의 경우를 보면 저체중 집단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정숙, 2004; 최미옥, 김주연, 2008). 이러한 경향은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매력적인 신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Kilpatrick, Ohannessian과 Bartholomew(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자신이 날씬한지, 보통인지, 아니면 살이 찘는지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남성은 자신의 몸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자신의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신체질량지수가 가장 낮은 저체중 집단의 학생들의 신체 자존감이 가장 높았으며, 자신의 체형에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신체질량지수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승경, 손

승아, 2004). 이러한 경향은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의 매력적인 신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문화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신체 매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체질량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신체 이미지는 사회문화적 영향 및 신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정도이며, 이는 실제와 이상적 체중 간의 불일치와 외모에 대한 만족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를 신체이미지에 대한 태도라고 본다. 태도는 정서와 인지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서는 자신의 외모(체중과 체형에 대한 관심)에 대한 느낌, 인지적 차원은 자신의 체형과 외모 혹은 신체불만족에 대한 개인적 사고나 신념이다.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반응에 있으며, 이것이 신체질량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Anderson & Bulik, 2004; Furnham, Badmin, & Sneade, 2002; Labre, 2002). McCabe와 Ricciardelli(2003)는 여자들은 일관되게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신체불만족이 증가하는 반면, 남자들은 신체불만족과 체중 혹은 체형에 대한 관심을 신체질량지수와 비교했을 때 나뉘는 수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부정적 신체상을 남자들은 더 마르려는 욕구 대 더 무거워지려는 욕구와 현재 체중과 원하는 체중에서 오는 불만족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몸무게 불일치로 알려져 있다. 저체중 남성이 가장 신체불만족을 보이고 과체중의 여성은 자신이 덜 매력적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체질량지수가 이상적인 체

형, 자아존중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신체지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느끼는 개인의 지각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면, 만족하는 경우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본다(John, Janet, & Craig, 2002, 이병혜, 2009 재인용). 따라서 신체와 관련한 다양한 기준들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시기 자체의 자아존중감이 신체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Banfield와 McCabe(2002)는 신체이미지의 정서적 차원을 개인이 외모에 대해 갖는 느낌이라면, 인지적인 측면은 체형과 외모에 대한 생각과 신념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 두 차원이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특정한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아동기에 형성을 시작하는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신체 특히 외모와 관련된 주관적인 지각과 경험의 산물이다(Cash, Melnyk, & Hrabosky, 2004).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신체이미지와 내면화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의 불일치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외모를 가꾸기 위한 행동이 사회적 현상으로 특징지어질 만큼 외모가 강조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모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특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산되고 있다(성미혜, 2005). 신체불만족은 신체 외모에 대한 실제와 이상적인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다른 말로 신체 외모의 사회적 이상을 자신의 가치로 내재화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Heinberg, Thompson, & Storer, 1995). 문화적 신체 이상을 내재화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외모 만족이 학교 적응을 매개(한혜령, 김현숙, 2010)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 정도는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신체불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김영미, 2007; Littleton, Axon, & Cynthia, 2001).

2. 자기개념의 문제

신체불만족과 관련한 자기 개념으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많이 연구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심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단독으로 설명되는 특성이 아니라 외모나 우울과 같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은 신체불만족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많이 측정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이 높은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은정, 2008; 최태산, 공중례, 2010).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여성이 자신의 자아존중을

보상하고자 스스로 가장 통제하기 쉬운 영역인 신체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다시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는 과정을 이끈다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은 신체불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체중과 신체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ndelson, White, & Mendelson, 1996).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평가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다른 정서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낮은 자아존중감 자체가 신체불만족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는 체중, 외모와 같은 좀 더 신체와 관련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만족의 수준을 나타내는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신체불만족이 높을 뿐 아니라 보통의 경우보다 신체불만족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신체불만족의 경우 신체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자기 개념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체불만족과 다이어트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삶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함을 밝히고 있다(Cash & Lavalley, 1997). Cash와 Pruzinsky(2002)의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평가를 반영하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각 신체 부분에 관한 자기 평가를 반영하는 신체 존중감이 낮았을 뿐 아니라 신체 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bster & Tiggemann, 2003).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 및 신체불만족과 같은 자기 개념의 문제가 섭식장애의 모든 모델의 위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 장애 집단과 일반 여대생 집단은 체중의 증가나 감소가 외모,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Giudice, 2006). 또한 신체이미지 혹은 외모와 관련된 자기 평가와 같은 자기 개념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매개 혹은 중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외모와 관련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전달하는 사회문화적 태도의 영향을 매개 혹은 중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문화적 영향 역시 신체불만족의 중요 요인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TV에 노출된 소녀들과 노출되지 않은 소녀들을 비교한 결과, 신체질량지수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소녀들이 식사태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체중 조절을 위해 구토를 하는 소녀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신체불만족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영상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는 보통 체형의 모델, 뚱뚱한 체형의 모델을 보았을 때 보다 날씬한 체형의 모델을 보았을 때 신체만족도가 떨어졌으며, 이 결과는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신체불만족이 높았던 집단에서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Groesz, Levine, & Murnen, 2002).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신체의 제시는 자신의 신체와의 비교를 통해 신체불만족을 촉진할 수 있는데, 특히 전반적인 자기 평가가 신체나 외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사회문화적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마른 이상적인 체형을 사회적 기준으로 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들 변인들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의 예측 요인인지 결과 요인인지 알 수 없으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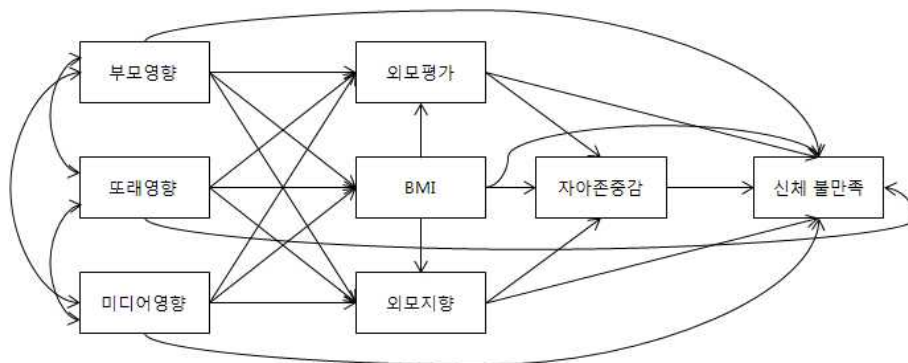


그림 1. 신체불만족에 대한 연구모형

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외모지향 및 외모평가가 자아존중감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도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을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을 신체불만족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며, 자아존중감이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외모지향 및 평가의 결과 변인으로 신체불만족에 직접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 영향도 함께 설정하여 그 가설적 모형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및 충청도 소재의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급의 수업 담당 교사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총 441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하였으나 문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일관된 반응을 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41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4.66세였으며, 그 중 남학생은 167명(40%) 여학생은 251명(60%)이었다.

평균 신장은 163.3cm(표준편차 7.4), 평균 체

중은 52.7kg(표준편차 9.6)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생 표준검사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풍족한 편 114명(27.3%), 보통 279명(66.9%), 생활이 어려운 편 22명(5.2%)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의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사회문화적 영향

Keery, Van den Berg와 Thompson(2004)이 개발한 삼자영향척도(Tripartite Influence Scale-Revised: TIS-R)를 박정수(2006)가 번안하면서 일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영향(20 문항), 또래 영향(13문항), 미디어 영향(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정수(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부모 .89, 또래 .91, 미디어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91, 또래 .93, 미디어 .89였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는 키에 대한 몸무게의 비율로 계산한다(체중(kg)÷신장의 제곱(m²)). 신체질량지수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범주화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범주화 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를 활용하였다.

신체이미지

Cash(1994)가 개발한 신체에 대한 다차원 질문지(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강소영(2003)이 번안한 것 중 외모평가(7문항)와 외모지향(12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외모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소영(200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외모평가 .76, 외모지향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외모평가 .65, 외모지향은 .87이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지영(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

Littleton 등(2001)이 개발한 것을 문정신(2002)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체변형장애나 섭식문제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검사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불만족이 심한 것이다. 문정신(200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3. 분석방법

모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영향(미디어, 부모, 또래 영향), 신체질량지수(BMI), 신체이미지(외모평가, 외모지향), 자

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밝힐 수 있는 분석이다(Chan, Lee, Lee, Kubota, & Allen, 2007).

IV. 연구결과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치를 구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에 따라 하위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포함한 신체질량지수, 외모지향, 신체불만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문화적 영향, 외모평가, 자아존중감,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예측변수인 부모 영향,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 신체질량지수(BMI), 외모평가, 외모지향,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수인 신체불만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에 합치된다는 평가설이 받아들여졌으며($\chi^2=9.153$, $p=.057$), RMSEA에 의한 적합도도 .056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LI, CFI, NFI도 각각 .958, .994, .990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표 1.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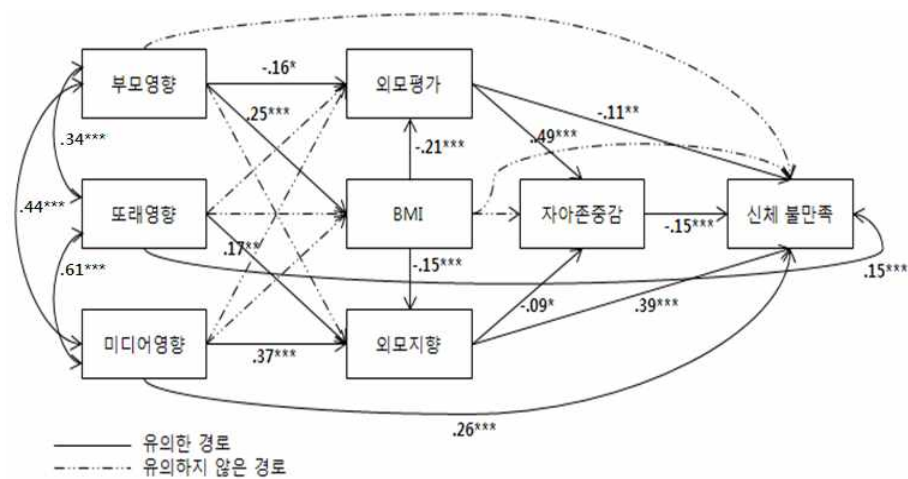
($N=418$)

변 인	1	2	3	4	5	6	4	8	평균	표준편차
1. 부모영향	1								41.87	13.51
2. 또래영향	.334**	1							39.30	11.98
3. 미디어영향	.438**	.605**	1						23.72	9.16
4. BMI	.209**	-.020	.032	1					19.73	3.00
5. 외모평가	-.176**	-.042	-.060	-.234**	1				18.35	4.49
6. 외모지향	.104*	.376**	.437**	-.155**	.135**	1			36.61	9.22
7. 자아존중감	-.095	-.086	-.106*	-.014	.456**	-.037	1		28.46	4.65
8. 신체불만족	.294**	.494**	.574**	-.058	-.152**	.566**	-.273**	1	47.12	14.19

* $p < .05$, ** $p < .01$

표 2.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모형의 적합도

	$\chi^2(\rho)$	자유도	RMSEA	TLI(NNFI)	CFI	NFI
연구모형	9.153(.057)	4	.056	.958	.994	.990
수용기준	$\rho > .05$		.05 이하	.9 이상	.9 이상	.9 이상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경로계수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체불만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표 3.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S.E.	C.R.
부모영향	BMI	.249***	.012	4.68
또래영향	BMI	-.090	.015	-1.50
미디어영향	BMI	-.022	.021	-.352
부모영향	외모평가	-.135*	.018	-2.49
또래영향	외모평가	-.008	.022	-.138
미디어영향	외모평가	.011	.031	.176
부모영향	외모지향	-.089	.033	-1.81
또래영향	외모지향	.176**	.042	3.27
미디어영향	외모지향	.374***	.057	6.64
BMI	외모평가	-.207***	.073	-4.26
BMI	외모지향	-.145***	.135	-3.31
BMI	자아존중감	.086	.070	1.920
외모평가	자아존중감	.486***	.046	11.00
외모지향	자아존중감	-.089*	.022	-2.05
BMI	신체 불만족	-.044	.170	-1.22
부모영향	신체 불만족	.064	.041	1.643
또래영향	신체 불만족	.145***	.051	3.375
미디어영향	신체 불만족	.263***	.073	5.645
외모평가	신체 불만족	-.106**	.125	-2.70
외모지향	신체 불만족	.388***	.060	10.058
자아존중감	신체 불만족	-.164***	.117	-4.29

* $p < .05$, ** $p < .01$, *** $p < .001$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산출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과 신체질량지수,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과 외모평가, 부모 영향과 외모지향, 신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부모 영향과 신체불만족을 제외한 13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직·간접 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직·간접 효과에 대한 결과에서는 미디어 영향의 효과 크기(전체효과=.41)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경로에서 직접 효과가 간접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접 경로를 통해 직접 효과보다 전체 효

표 4.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직접·간접 효과

		부모 영향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	BMI	외모 평가	외모 지향	자아 존중감
BMI	직접	.25	-.09	-.02	—	—	—	—
	간접	—	—	—	—	—	—	—
	전체	.25	-.09	-.02	—	—	—	—
외모평가	직접	-.14	-.01	.01	-.21	—	—	—
	간접	-.05	.02	.01	—	—	—	—
	전체	-.19	.01	.02	-.21	—	—	—
외모지향	직접	-.09	.18	.37	-.15	—	—	—
	간접	-.04	.01	—	—	—	—	—
	전체	-.13	.19	.37	-.15	—	—	—
자아존중감	직접	—	—	—	.09	.49	-.09	—
	간접	-.06	-.02	-.03	-.09	—	—	—
	전체	-.06	-.02	-.03	—	.49	-.09	—
신체불만족	직접	.06	.15	.26	-.04	-.11	.39	-.16
	간접	-.03	.08	.15	-.03	-.08	.02	—
	전체	.03	.22	.41	-.08	-.19	.40	-.16

과 값이 커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문화적 영향인 부모 영향,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이 신체불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BMI, 외모평가, 외모지향,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문화적 영향의 하위변인인 부모 영향, 또래 영향, 미디어 영향은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불만족간의 관계에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간접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 영향 요인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에서 부모 영향과 외모 지향, 또래 영향과 신체질량지수 및 외모평가, 미디어 영향과 신체질량지수 및 외모평가, 부모 영향과 신체불만족, 신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불만족의 8개 경로를 제외한 13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모평가가

신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 간을, 외모지향이 신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 간을, 자아존중감이 신체질량지수, 외모지향, 외모평가와 신체불만족 간을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변인들 간의 매개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윤진숙, 박정아, 2002; 홍금희, 2008; Canals et al., 2009; Chaiton et al., 2009; Davison & McCabe, 2006; Ferma, 2005). 둘째, 연구모형에서 신체불만족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4개의 요인들 모두 직접, 간접으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과 신체불만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영숙, 2005; 이영아, 2011; 한미정, 2000; Giudice, 2006; Stice et al., 1998; Tiggemann, 2001).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 번째로, 신체질량지수가 예측 변인으로 외모지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김승경, 손승아, 2004; 문정신, 2002; 최명숙, 천숙희, 2007; Anderson & Bulik, 2004; Furnham et al., 2002; Labre, 2002; McCabe & Ricciardelli, 2003; Sousa, 2008; Watkins et al., 2008). 이는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의 결과 변인으로 나타났던 손은정(2003)의 연구와는 대조되는 결과이지만, 신체불만족의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Cash & Lavalley, 1997; Mendelson et al., 1996). 본 연구 결과는 Mendelson 등(1996)과 Cash와 Lavalley (1997) 이 제시한 바와 같이 낮은 자아존중감

은 개인적 취약성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신체불만족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질량지수가 높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신체불만족을 높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에, 상담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의 신체불만족 행동에 대해 살펴 보며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질량지수가 개인적 취약성을 예측해 주는 신체 변인이기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이미지가 신체불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적 개입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능한 다른 사람과의 신체 평가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와 같은 시선에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신체이미지와 관련되어 겪게 되는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던 사회문화적 차원의 영향과 신체질량지수,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체이미지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

한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집단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표집 연구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난 특징인지 혹은 일반 청소년들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검사를 통해 신체불만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신체불만족과 관련된 섭식의 문제나 지나친 다이어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자료도 함께 추가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에 대해 Cash(1994)가 제안한 모델 중 일부분만을 검증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 모델이 제안한 여러 변인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신체불만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반적인 심리적 기능의 영향과 같은 다른 변인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3). 외모 콤플렉스와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경, 손승아 (2004). 여대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과 섭식태도의 차이. 여성연구논총, 18, 1-14.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영미 (2007). 무용수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와 신체이미지 왜곡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6(1), 123-134.
- 김지영 (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정신 (2002).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 (2005). 대학생의 생활체육 참여가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8), 857-864.
- 박정수 (2006). 섭식 행동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검증: 대학생,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시 통계 웹진 (2009). 외모를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가. <http://stat.seoul.go.kr/jsp/WWSS8/WWSDS8123.jsp#>에서 2012. 1. 3. 인출
- 성미혜 (2005). 여대생의 섭식장애, 신체증상 및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한국모자보건학회지, 9(2), 155-166.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

- 죽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국내 청소년 비만관련 식습관 행태조사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청.
- 윤진숙, 박정아 (2002). 대구지역 여고생들의 체형인식과 섭식장애 관련 식사행동 및 주관적 건강상태와의 관련성. 과학논집, 28, 특집호, 101-111.
- 이건미, 이로사 (2009). 무용전공 여자대학생의 신체상 지각.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1(1), 11-22.
- 이병혜 (2009) 매스미디어의 신체 이미지와 자아 존중감, 우울에 대한 영향. 한국방송학보, 23(3), 166-204.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선형 (2006). 여자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체중에 대한 외부압력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 401-402.
- 이영아 (2011). 서울시 중년 여성의 실제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에 대한 연구: BMI별 비교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2(4), 253-261.
- 이정숙 (2004).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식생활태도, 영양지식, 영양상태 및 섭식특성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9(4), 501-510.
- 장휘순 (2007). 청소년의 신체상과 성형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6-7.
- 천경민 (2010). 여고생의 자기평가체형과 BMI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2), 557-565.
- 최명숙, 천숙희 (2007).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 체형만족도, 분노 및 식이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4), 327-335.
- 최미옥, 김주연 (2008). 여대생의 BMI지수에 따른 식습관과 신체만족도 및 외모관리 행동 조사-체형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2), 605-613.
- 최영준, 이동환, 오갑진 (2003). 자기평가체형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 최태산, 공종례 (2010). 청소년들의 자아상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7(2), 69-84.
- 한미정 (2000). 신체이미지 관련 TV 메시지의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4(3), 291-317.
- 한혜령, 김현숙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및 외모의식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8(2), 61-76.
- 홍금희 (2008). 남자 대학생의 대중매체노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1149-1159.
- Anderson, C. B., & Bulik, C. M. (2004). Gender differences in compensatory behaviors, weight and shape salience, and drive for thinness. *Eating Behaviors*, 5, 1-11.
- Banfield, S., & McCabe, M. P. (2002). An

- evaluation of the construct of body image. *Adolescence*, 37(146), 373-393.
- Canals, J., Sancho, C., & Arijia, M. V. (2009). Influence of parent's eating attitudes on eating disorders in school adolescents. *Europe of Children Adolescence Psychiatry*, 18, 353-359.
- Cash, T. F. (1994).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Old Dominion University. Norfolk, VA.
- Cash, T. F., & Lavalley, D. M. (1997). Cognitive-behavioral body image therapy: Extended evidence of the efficacy of a self-directed program.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5, 282-294.
- Cash, T. F., Melnyk, S., & Hrabosky, J. (2004). The assessment of body image investment: An extensive revision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1), 305-316.
- Cash, T. F., & Pruzinsky, T. (2002).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Y: The Guilford Press.
- Chaiton, M., Sabiston, J., O'Loughlin, J., Maximova, K., & Lambert, J. (2009).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ing adiposity, psychosocial indicators of body imag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3, 588-596.
- Chan, F., Lee, G. K., Lee, E. J., Kubota, C., & Allen, C. A.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ehabilitation counseling research.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1(1), 44-57.
- Davison, T. E., & McCabe, M. P. (2006). Adolescent body image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15-30.
- Ferma, E. K. (2005). *Peer influence and body image related concerns in adolescent girl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t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Furnham, A., Badmin, N., &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among males across the lifespan: A review of past literatur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36(6), 581-596.
- Giudice, J. (2006). *Body image concerns of the adolescent female and the impa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sychology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 Glessner, M. M., Hoover, J. H., & Hazlett, L. A. (2006). The portrayal of overweight in adolescent fiction.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15(2), 116-123.
-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K. K. (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 1-16.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Keery, H., Van den Berg, J., & Thompson, J. K.

- (2004). A test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body imag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1(3), 237-251.
- Kilpatrick, M., Ohannessian, C., & Bartholomew, J. (1999). Adolescent weight management and perceptions: An analysis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69(4), 148-152.
- Labre, M. P. (2002). Adolescent boys and the muscular male body ideal.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233-242.
- Leslie, S., & Janice, Z. (2006). The contribution of emotion regulation to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in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 219-228.
- Littleton, H. L., Axon, D., & Cynthia, L. S. (2001).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body dysmorphic symptom: The brief body dysmorphic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to the meeting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cCabe, M. P., & Ricciardelli, L. A. (2003). Body image and strategies to lose weight and increase muscle among boys and girls. *Health Psychology*, 22(1), 39-46.
- Mendelson, B. K., White, D. R., & Mendelson, M. J. (1996). Self-esteem and body-esteem: Effects of gender, age, and weigh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1-346.
- Polivy, J., & Herman, C. P. (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87-213.
- Rheanna, N. A., Alison, B. L., & Megan, M. L. (2007). The effects of gender and family, friend, and media influence on eat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1024-1037.
- Ricciardelli, L. A., & McCabe, M. P. (2003).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influences on muscle gain and weight loss strategies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Psychology of School*, 40, 209-22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Sousa, P. M. (2008). Body-image and obesity in adolescence: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1(2), 551-563.
- Stice, E., Killen, J. D., Hayward, C., & Taylor, C. B. (1998). Age of onset for binge eating and purging during late adolescence: A 4-year surviv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671-675.
- Tiggemann, M. (2001). The impact of adolescent girl's life concerns and leisure activities on body dissatisfaction, disordered eating,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2), 133-142.
- Watkins, J. A., Christie, C., & Chally, P. (2008).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body mass index in college me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1), 95-99.

Webster, J., & Tiggemann, M.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body satisfaction and self-image across the life span: The role of cognitive contro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2), 241-252.

1 차원고접수 : 2012. 4. 4.

수정원고접수 : 2012. 8. 17.

최종게재결정 : 2012. 8. 29.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s

Hae La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elf-esteem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and peer and media effects and appearance evaluation and orientation were observed to have direct effects as well as indirect effects on levels of body dissatisfaction. Moreover, these results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 and programs which may be helpful for adolescents who exhibited body dissatisfaction and show the systematic process of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and self-esteem on body dissatisfaction. This study examines how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and self-esteem influence body dissatisfaction in adolescents. 418 adolesc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items regarding a number of variable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effects(media, parents, peer effects), BMI, body image (appearance evaluation, appearance orientation), and self-esteem on body dissatisfaction, AMOS 18.0 was utilized for path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13 of 21 paths were categorized as significant and the variables of four areas all influenc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question of body dissatisfaction.

Key words : Sociocultural Effects, BMI, Body Image, Self-Esteem, Body Dissatisfaction